

시론

실리콘 벨리와 지역 활성화, 그리고 대학



주정민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 파견교수

모든 지자체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지자체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기업유치와 산업발전 방안을 찾고 있다. 지자체장이 해법을 찾는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도권에 인력, 자본, 기업이 몰려있어 지역에서 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백약 처방이 무효'인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지역 활성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역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고, 명백히 대한민국 일부이다. 지역발전 없이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차원의 과제이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괜찮다. 지역 활성화의 대표 사례가 미국의 실리콘 벨리이다. 미국이라는 특수 상황이 작용했지만, 실리콘 벨리의 성공은 지역 활성화를 길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리콘 벨리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이다.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의 크기이다. 미국의 첨단산업, 특히 IT와 반도체 기반의 연구소와 기업이 몰려있다. 경제와 산업 규모가 웬만한 국가보다 크다. 실리콘 벨리의 GDP는 2023년 기준으로 약 4천억 달러로 덴마크나 말레이시아 정도의 규모이다. 실리콘 벨리의 효과에 힘입어 캘리포니아주는 GDP 규모에서 2018년에 영국을 추월했다.

실리콘 벨리가 처음부터 자본과 인력이 몰려드는 벤처 창업의 성지가 된 것은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무기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이곳에 모여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방위산업이 중심이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과감한 세제 혜택 등 지원이 뒤따랐다. 이에 힘입어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과 창업이 이어졌다.

실리콘 벨리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체이다. 실리콘 벨리 주변의 버클리 대학, 남가주 대학 등이 기업과 협력해 연구와 기술개발,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제공했다.

실리콘 벨리 인근 대학은 실무중심의 교육 과정을 중시하고, 실패에 관대하며, 기업가 정신을 높게 평가한다. 학생들은 창업을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개방적인 문화와 유연한 사고를 하는 벤처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리콘 벨리의 창의력을 더욱 높였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벤처 창업이 이어지면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벤처 캐피털 기업의 투자가 집중됐다. 벤처 기업의 성공 요건인 자본 조달이 쉬워지면,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발전해 성공을 거두는 창업생태계가 형성됐다. 최근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연구팀은 스타트업이 실리콘 벨리로 오면 성공확률이 27% 상승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유무형의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진 대학과 함께 해야 한다. 대학은 연구력과 기술력, 인력 등 산업 활성화 자원이 몰려있는 저수지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지자체는 보다 더 진지하게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학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역 대학도 지역과 함께 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대학의 미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대학의 교과과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무적으로 재편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실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도전정신,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젊은 학생들이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칼럼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뇌졸중'



곽희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뇌졸중, 흔히 중풍(中風)이라 부르는 질환은 뇌혈관의 허혈(뇌경색), 뇌혈관의 출혈(뇌출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한 의학에서 부르는 중풍의 뜻은 '중'은 '적중되어 걸리다'이고 '風'은 '빠르게 부는 바람처럼 병세가 급격한 질환'을 의미한다.

중풍은 뇌 기능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급속하게 문제가 발생해 상당 기간동안 지속되며 이로 인해 뇌 기능의 장애와 후유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발병가능한 위험인자는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 대사증후군, 심질환, 비만, 식이영양, 신체활동 등으로 다양하다.

중풍은 급성기와 재활기로 나뉜다. 급성기는 발병으로부터 2주 동안을 일컫는데, 급격한 생체징후들이 나타나고 중풍으로 사망하는 경우의 90%가 이 기간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하다. 재활기는 운동장애, 언어장애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기이다.

급성기 중풍의 증상으로는 반신 마비, 반신 감각장애, 실어증, 자세 불안정성, 복시, 연하장애, 두통, 의식장애 등이 나타난다. 뇌혈관의 문제는 급격한 발병양상을 보이며 급성기가 지난 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다.

뇌졸중의 진단은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영상검사를 사용한다. 증상의 갑작스런 발병과 반신 마비, 발음장애,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확인하며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혈관검사(CTA, MRA) 등을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중풍의 치료는 급성기와 재활기로 나뉜다. 급성기 치료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중요하며 증상 발생으로부터 4시간30분 이내에 신속한 응급치료가 요구된다. 혈전을 용해시키거나 중재 시술로 혈관을 열어줘 뇌혈관의 재관류를 시도한다.

하지만 출혈성 뇌졸중으로 고혈압, 지주막하 출혈, 동정맥 기형 파열인 경우에는 증세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재활기 치료는 중풍의 재발 방지와 후유증을 개선해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이 기간에는 양방과 한방의 협진치료가 효과적이다. 양방치료는 약물치료로 항혈소판제제인 aspirin, clopidogrel과 항응고제인 heparin, warfarin 등을 투여해 혈관이 막히지 않

도록 한다.

한방치료는 침과 한약을 활용한다. 혈자리 침치료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에 시술하는 침치료는 근력을 회복해준다. 양쪽 귀에서 똑바로 올라가 정수리에서 만나는 지점인 백회(百會)혈, 팔꿈치를 굽혔을 때 생기는 주먹의 바깥쪽 오목한 곳인 곡지(曲池)혈, 무릎뼈에서 8-9cm 아래에 장강이뼈 바깥쪽 힘줄 안쪽에 위치한 족삼리(足三里)혈 등을 활용한다.

한약치료는 허혈성 뇌졸중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며 뇌병변으로 인한 제반증상을 호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 순기활혈탕(順氣活血湯) 등을 사용하는데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한약재들이 다량 포함돼 있다. 또한 한약재 중 진교(秦艽)는 허혈로 인한 근육경련에 많이 사용된다.

재활기 중풍환자의 생활관리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해 보조를 받아야 하며, 갑작스런 발병으로 상실감 및 우울감이 있어 구성원들의 정신적이지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중풍 재활 방지와 재활에 대한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추운 날씨와 스트레스는 순환기 질환에 위험하다. 힘든 시기에 모두들 혈관 건강을 잘 챙기길 바란다.

독자투고

빛바랜 '마약 청정국' 위상 강화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리가 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한때 아시아의 모범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마약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대마, 코카인, 필로폰, 펜타닐 등 수많은 마약이 태국과 중국,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 밀물처럼 유입되면서 오히려 마약공화국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자조감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마당에 최근 소위 '마약 던지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가 다소 의아할 수 있는 '마약 던지기'수법이라함은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연락 후 가상계좌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확인 후 판매자가 약속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던져놓으면 이를 구매자가 회수해가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최근 마약 판매 수법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마약사범 단속 현황에서도 알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411명이던 검거 인원이 지난해 1만787명으로 2019년 대비 약 26%가 증가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는 마약사범은 전체의 2%도 안되며 실제 마약인구는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세청의 마약사범 단속 현황도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판세청이 24년 공개한 마약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하루 평균 2건, 총 623건의 마약 밀수를 적발하였다고 하는데 적발량만 하더라도 574kg으로 이는

1천9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1kg이상의 아편, 50g이상의 헤로인과 필로폰을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내외 국인을 막론하고 최대 사형에 처하고 재산도 모두 몰수하는 극악처방으로 마약사범을 다스리고 있다. 비단 이웃 국가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마약범죄는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나라를 병들게 하는 망국행위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 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의 유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김덕형·정성경찰서 경무계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인구 감소세 뚜렷한 광주 지역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

광주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다른 광역시에 비교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청년층 타 지역 유출 가속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제2차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계획이다.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지역내 4천90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 2023년 주민등록인구는 141만9천27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7%, 1만1천813명 줄었다. 전국 총인구가 0.1%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대구 0.6%, 인천 1.3%, 대전 -0.1%, 세종 0.9% 등과도 대비되는 상황이다. 광주 인구는 2020년부터 급격한 내리막이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수치도 악화일로다. 2023년 출생아는 6천172명으로 전년에 비해 17.1%, 1천274명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는 8천886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2천714명 많았다.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

발등의 불이다. 소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는 균형발전과 맞물려 인구감소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2024 시도지사 콘퍼런스 세션 발표에서 "저출생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미래차, 창업과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인 산업 설계,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올해 출생아가정 상생카드,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와 긴급육아 이웃 돌봄 확대,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소상공인 아이돌봄,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임신·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 등의 사업도 새롭게 펼친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54년에는 출생 5천명, 사망 1만7천명으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국가적 저출생 추세와 더불어 일자리·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에 따라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 인구정책 5개년 계획 등 장기 대책 마련과 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타 지역과 다른 광주만의 방향 설정으로 경쟁력 약화를 차단해야 한다.

급격 확산 독감 예방수칙 지켜야...방심이 화 키워

인플루엔자(독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의사환자는 1천명당 73.9명으로 지난 2016년(86.2명) 이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전과 속도도 빨라 3주 전과 비교하면 10배나 급증했다. 보건 당국은 서둘러 예방접종을 마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도 청소년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2주차(12.22-28)에 99.5명으로 49주차 5.2명 → 50주차 7.0명 → 51주차 3.7명에서 수직 상승하는 추세다. 광주는 107.8명까지 치솟았다. 전국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는 52주차 기준 50.9%로 직전 대비 2.1%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다.

이미 지난해 12월20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인데, 확산세가 심상찮다.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조속히 병원을 찾아 치료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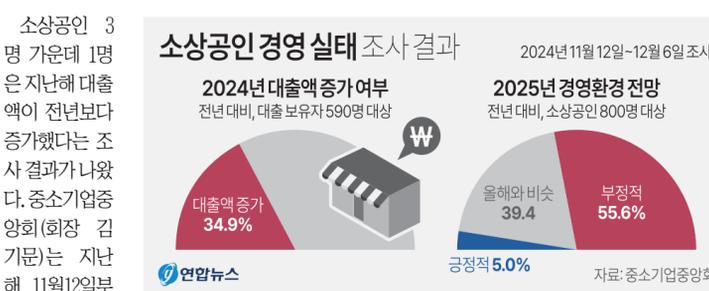
야 한다. 감염 확률을 줄이고 증상이 덜하는 등 백신을 통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당국은 작년 동기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만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독려하는 중이다.

일상생활 속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외출,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용변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기침 예절 실천도 필수다.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며 이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으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해야 한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도록 개인이 각각심을 가져야 할 엄중한 시기다. 간단한 위생 수칙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감기라고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

그래픽 뉴스

소상공인 3명 중 1명 "대출 증가"...55% "경영환경 악화 전망"



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대출 보유자 590명 가운데 34.9%는 2023년 대비 대출액이 늘었다고 8일 밝혔다.

대출액 증가는 총청권(41.0%)과 전라권(44.3%)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 중인 대출 금리 평균은 4.99%였고, 금리가 5.0%를 넘어가는 경우도 65.9%에 달했다. 구간별로 보면 '5.0%'가 38.6%로 가장 많았고 '5.1% 이상' 27.3%, '4.0~4.9%' 2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지원이 80.8%로 가장 많이 꼽혔고 판로지원(9.9%),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2.4%), 상생협력 문화 확산(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 대상 소상공인 55.6%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답변은 39.5%였고, 긍정적이란 전망은 5.0%에 그쳤다. 다만 소상공인의 93.5%는 폐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